

아이퀘스트, AI 융합 서비스 플랫폼 공동 개발 및 비즈니스 확대

- ▶ AI 비전GPT 플랫폼기업 스누아이랩과 사업 협력 MOU 체결
- ▶ B2B AI 플랫폼 공동개발을 통한 AI 융합 서비스 시장 진출... 사업적 시너지 기대

B2B(기업간거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아이퀘스트(262840)는 AI 비전GPT 플랫폼기업 스누아이랩과 B2B AI 융합 서비스 플랫폼 공동개발, 사업협업에 대한 협약을 2월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이퀘스트의 빅데이터와 스누아이랩의 딥러닝 플랫폼(AutoCare)을 상호 협력하여 융합 발전시키고 B2B AI 서비스 시장을 발굴하여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가 보유한 제품과 기술, 비즈니스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니즈에 상응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새로운 AI 서비스를 공급하여 AI 기반 SW 융합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양사는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경쟁력 있는 분야를 상호 협력하여 선진적인 비즈니스를 제시하고 아이퀘스트가 보유한 수많은 B2B 고객에게 차별화된 딥러닝 자동화 AI 플랫폼 서비스를 공급하며 AI 서비스 플랫폼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도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아이퀘스트는 국내 ERP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AI 자동 분개' 특허를 취득하여 현재 디지털화 되고 있는 다양한 기업 상거래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법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는 경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B2B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 ▲얼마예요 ERP ▲AI 얼마경리 ▲얼마장부 ▲얼마싸인 ▲아이퀘스트 B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기반의 근태관리 서비스인 '얼마근태'를 출시하는 등 기업 경영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스누아이랩은 AI 비전GPT 플랫폼기업으로, 서울대학교 현직 AI 전공 교수 6명과 삼성종합기술원, 삼성테크윈 출신의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2019년 설립된 조인트 벤처다. 딥러닝 자동화플랫폼(AutoCare Platform)을 통해 AI 기반 영상 데이터의 메타데이터화를 통한 생성, 탐색과 자동화된 학습 및 모델의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머신비전 분야의 이미지 전처리 분야에 다방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퀘스트 김순모 대표는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아이퀘스트는 B2B AI 역량강화를 통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AI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성장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자료: 아이퀘스트 김순모 대표(좌)와 스누아이랩 유명호 대표(우)가
MOU 체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